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2월 1일(음력10월 20일) 수요일 (주간) 제502호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시 문화재 2호 봉황각, 유교문화원, 기명 법흥사 등
웰핑 ○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불자가 '개종' 유혹받는 까닭은?

체계적 교육 · 관심 결핍 … 타종교 적극 권유에 '흔들'

장애인 · 노동자 등 소외계층 특히 심각

경상도 K대학의 윤 모 교수(45). 최근 사찰에 발길을 끊고 가톨릭 신자가 됐다. 스님이 재력가 신도들에게만 유독 친절하게 대하는 등 신도들을 차별하는 모습에서 큰 환멸을 느꼈다. 불교의 심오한 사상에 매료돼 부부가 사찰에 다녔는데, 교리에 대해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무조건 믿으라"는 말 뿐이어서 실망이 쌓여가던 차였다.

경기도 안성 이 모(68) 할머니는 "딸의 이혼을 막기 위해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딸은 결국 이혼했고 아들까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다 개신교로 개종했다.

개종하는 불자들이 적지 않다. 서울대 은기수 교수의 논문 '한국종교의 개종유형 특성에 관한 연구'(2001년)에 따르면 개종경험자들만을 대상으로 봤을 경우 불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비율이 전체의 72%였다. 불교를 등지는 비율이 다른 종교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자의 개종비율이 높은 것은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불자 개인의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복적 요소만을 내세우며 정법을 가르치지 않는 사찰들이 많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결과 개종하는 불자들은 다른 종교에 매력을 느껴서라기보다는 불교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불교에 실망한 후 등을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을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개종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사찰이나 도반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개종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구에서 30여 년 동안 열심히 절에 다녔던 강 모 할머니(78)는 2년 전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불교에서 돌아섰다. 며느리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와 교우들이 밤낮으로 빈소를 지키며 아들의 명복을 비는데 감동받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간직해 온 믿음이 힘든 순간의 실질적 도움으로 인해 바뀐 셈이다.

(사)수효복지대학 상조회 정양훈 팀장은 "복지대학 노 보살들이, 주변 노인 불자들 중 임종을 앞두고 타종교의 자상함에 마음을 뺏겨 개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상례(喪禮) 문제에 관한 한 타종교가 한 발 앞서 가는 것이 사실이다. 수효복지대학에서도 장의봉사 신청자에게 수의를 비롯한 물자를 지원하고 염불봉사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양훈 팀장은 "이 정도 지원도 가톨릭에 비하면 7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털어놨다.

개종하는 불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를 이제열 법사(유마선원장)는 "공덕만 내세우며 맹목적인 신행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제대로 배웠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신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사는 "사찰은, 불교가 불행을 면하게 해주는 종교가 아니라 실상을 바로 보고 극복하는 지혜를 깨닫는 종교임을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이나 노동자 등 사회에서 홀대받는 계층의 개종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불편한 몸으로 자주 절에 다녔던 지체장애 2급 박 모 씨(30)는 절에 갈 때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이해도 부족한 불교계에 실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찾은 연수제일교회의 장애인 전용 리프트시설과 장애인을 위해 개판한 성경책 등에 감동, 개종을 결심했다.

박 씨는 "연수제일교회의 200여 장애인 신도 중 나와 같은 이유로 개종한 이가 상당수된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10년 넘게 장애인 포교에 힘써온 광림사 해성 스님은 "불교계가 장애인 심리를 읽지 못할뿐더러 프로그램도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불교를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 박경준 교수(불교학과)는 "철저한 교육과 함께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자신의 신앙에 대해 확신을 갖고 신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 김강진 기자

'현대불교'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현대불교' 평생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1994년 10월 15일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내걸고 출발한 '현대불교'가 사부대중 여러분의 큰 사랑에 힘입어 교계 정상의 신문으로 1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는 지난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함께 불교발전을 일굴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 영구독자 혜택
현대불교신문 영구독자에게는 평생 신문을 보내드리며, 자녀에게도 혜택을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구 구독료
62만5천원(일시불 납부)

■ 구독신청 및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TEL: 직통 (02) 737-0090
대표 02-737-8881
FAX: (02) 737-0697

창간 10주년 특별 영구구독 신청시 스마트폰 '아이 벗' 무료 증정

올해 12월 말일까지 영구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HP rw6100 기종, 시중가 72만6천원) 아이벗(I-BUD)을 무료로 드립니다. 불자 스마트폰 아이벗(I-BUD)은 2005년 1월 1일 부터 불교뉴스, 큰스님 법문, 사이버법당, 교양대학, 불교정보센터, 문화콘텐츠, 커뮤니티, my page, 문화상품샵 등 총 9개 메뉴로 구성되는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불교정보 매체입니다.

■ 아이벗(I-BUD) 제공조건: 12개월 의무사용, 가입비 3만원 별도

■ 아이벗(I-BUD):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며, BUD는 Buddha(부처), Buddy(친구)를 뜻합니다.

社 告

제10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마감 12월 15일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5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및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시상내역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각각 수여합니다.

불기 2548년 동안거가 시작된 11월 26일, 전국 100여 선원에서는 일제히 3개월간의 동안거에 들어갔다. 사진은 '선찰 대본산' 부산 범어사 금어선원에서 결제중인 수좌들의 참선모습. 범어사 금어선원=박재완 기자

전국 100여 선원 동안거 결제

불기 2548년 동안거 결제일을 맞아 전국 100여 선원은 11월 26일 일제히 결제법요식을 봉행하고 3개월간의 결제에 들어갔다. 결제대중들은 25일 저녁부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을 작성하고, 26일 오전 방장스님에게 결제법어를 청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수득수실(誰得誰失)고 약향자리(若向者裏) 득일척안(得一隻眼)하면 변지낙처(便知落處)하리라"고 법어를 내리며 수행자들의 분발을 격려했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등도 각각 법어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전국 40여 시민선방에서 5천여 명의 재가불자들도 동안거에 들어갔다. 남동우 기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우리이웃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할'

그림 · 조태호

우룡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주름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보관상태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전송 :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